

경북도서관



태양은 눈부시고 날은 달콤하다



7월 북큐레이션





7월 북큐레이션

우리의 여름에게

최지은



생각해보면 나의 두 손은
언제나 짝 차 있었던 것 같다.
홀로 걷는다 생각했던
그 골목에서도
내 손을 잡아주던 누군가의 손을
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.
그의 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
내 손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한 적 있으니까. (75 p.)





7월 북큐레이션

여름

알베르 카뮈

세계를 이해하려면, 때때로
고개를 딛 곳으로 돌려야 한다.
인간들을 더 잘 섬기려면,
잠시 거리를 뒤야 한다.
하지만 그런 힘을 얻는 데 필요한 고독은
어디에서 찾을 것인가,
정신이 집중되고 용기가 가늠되도록 오래 숨을 들이쉴 곳은
어디에서 찾을 것인가. (11 p.)





7월 북큐레이션

리버보이

팀 보울러



또다시 삶은 계속될 것이다.
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었다.
단지 때가 되면 누그러질,
건강한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다. (278 p.)





7월 북큐레이션

카모메 식당

무례 요코



"자연에 둘러싸여 있다고
모두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.
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
그 사람 하기 나름이니깐요.
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죠." (148 p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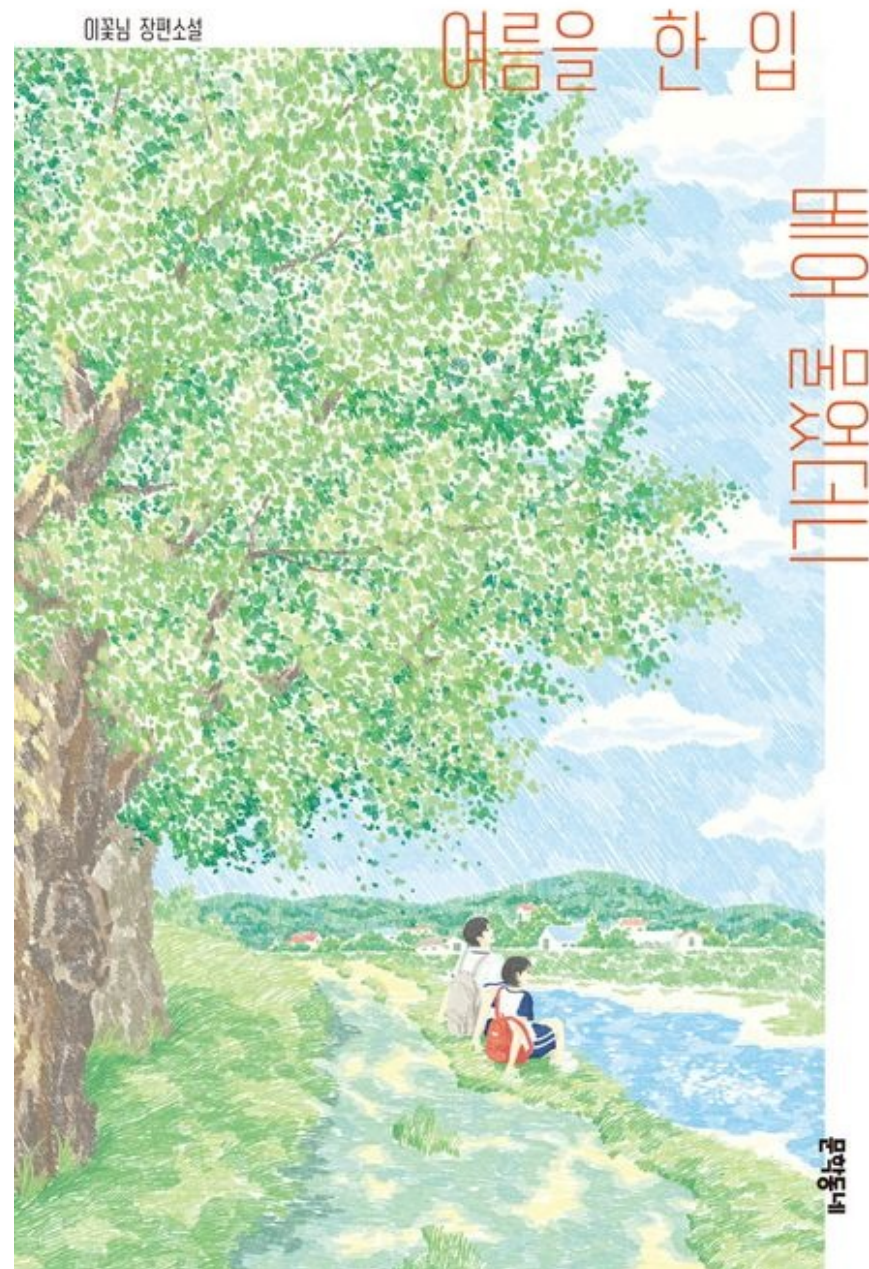




7월 북큐레이션

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

이꽃님



큰일이다.
이제 매미 소리도 모자라
저 태양만 봐도
지금이 생각날 테니까.
그냥 알 것 같았다.
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
내가 겪은 여름 중
가장 찬란하고 벅찬 여름이 될 거라는 걸. (187 p.)





7월 북큐레이션

여름 방학은 굉장해!

글 세보현 그림 김유대



"그새 잠이 드냐, 치사하게!
오빠 멋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걸!"
투덜거리던 동주도 어느새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.
희주 눈이 살짝 떠지더니
반달 모양으로 휘어진 건
보지 못하고 말이에요. (46 p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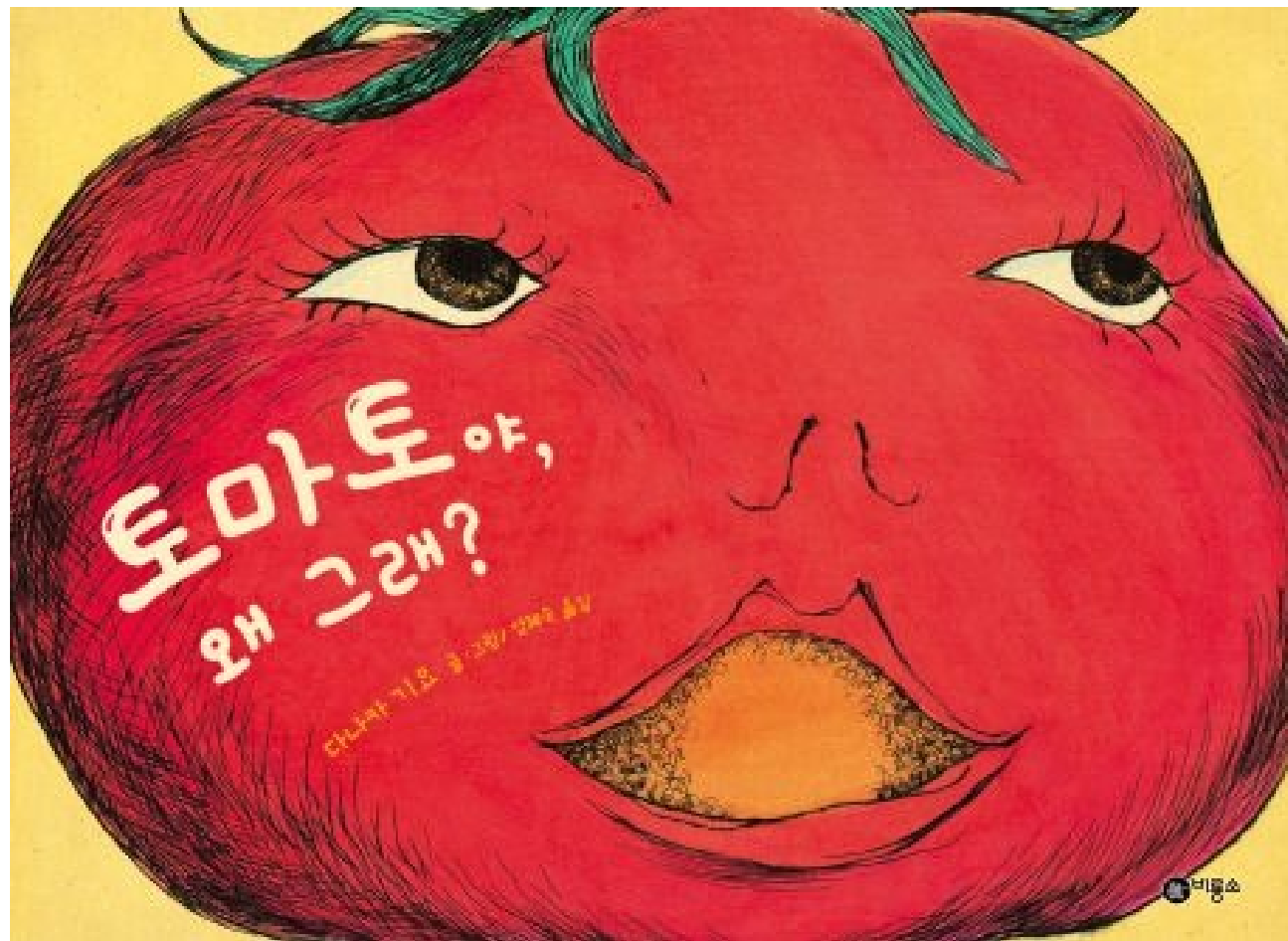




7월 북큐레이션

토마토야, 왜 그래?

글 · 그림 다나카 기요



데굴데굴
데구르르
처엄빙!
보그르르 풍덩.
"아아, 차가워!
정말 기분 좋아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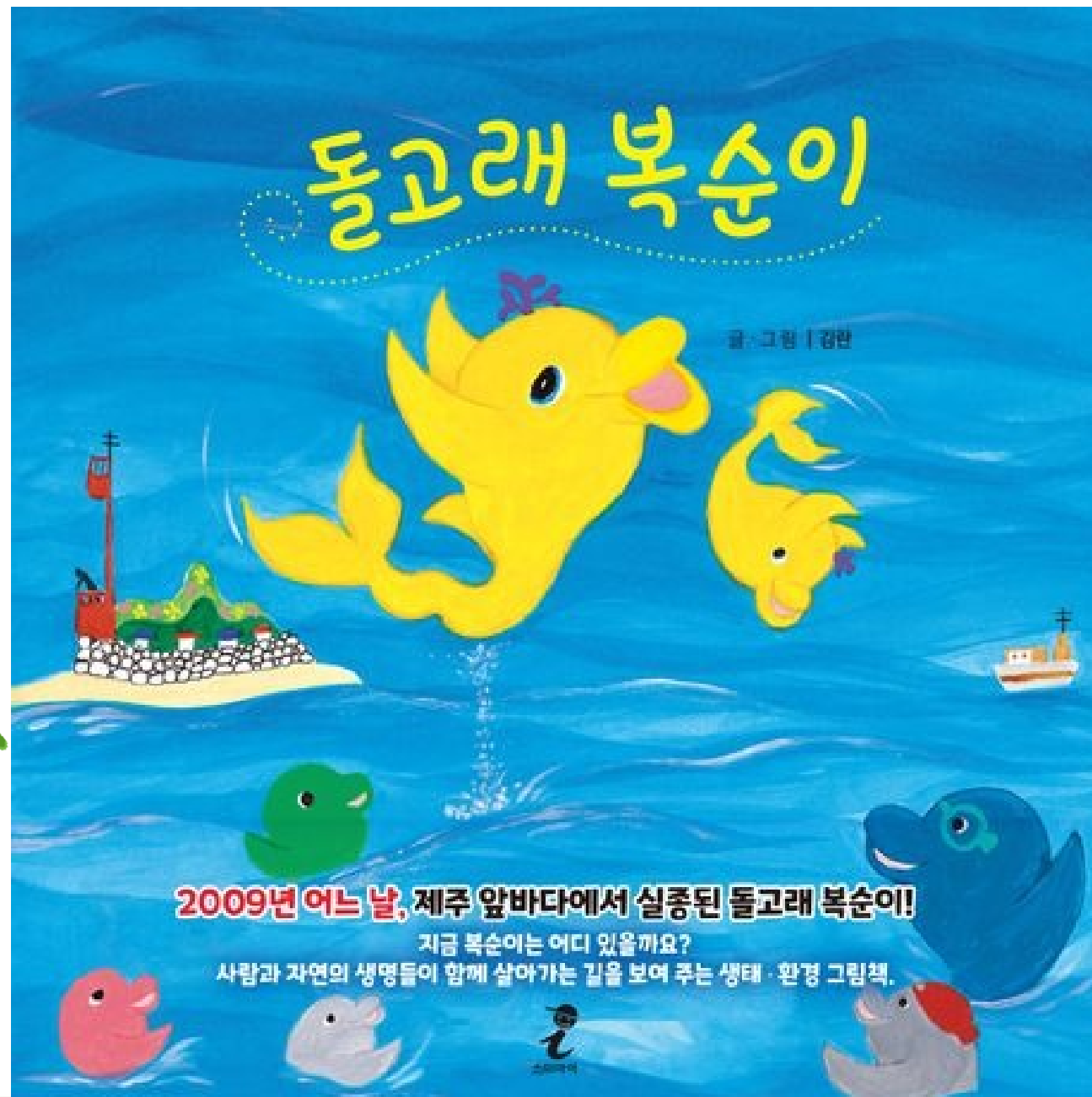




7월 북큐레이션

돌고래 복순이

글 · 그림 김란



드디어, 복순이와 태산이가 가두리에서 나와
바다로 가는 날이 되었어요!

사람들이 기뻐하며 외쳤지요.
"복순아! 태산아!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!"





7월 북큐레이션

안녕, 비

글 코 매글리어 그림 크리스 현행



나뭇잎엔 방울방울,
바위는 미끌미끌.

지렁이는 꿈틀꿈틀,
달팽이는 끈적끈적.

어린잎은 파릇파릇.





7월 북큐레이션

여름, 제비

글 · 그림 구윤미, 김민우



여름 방학이다.
비 오는 시골집은 정말 심심하다.
놀 친구도 하나 없고
왕할머니랑 할머니는 바쁘다.

